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정보

기호	사진	소속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1959.06.20 (65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전) 평택시 부시장 (현)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
2		국민의 힘	박용철	1964.11.11 (59세)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	(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6대, 7대, 8대 강화군의회 의원(3선)
5		무소속	김병연	1972.08.22 (52세)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졸업	(전) 인천광역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 (전) 강화군 축구연합회장
6		무소속	안상수	1946.05.28 (78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전) 3선 국회의원 (전) 민선 3·4대 인천광역시장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화군, 10·16 보궐선거 대비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 운영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이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

강화군이 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비해 30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선거 지원 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거 지원 상황실은 일정별 선거사무 지원과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선거관리,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개표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선거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전 공직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교육, 회의 등을 통해 공명선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법정 사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통해 공명선거를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부채비율 낮고, 채무 없어...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대비 감소 4년 연속 회계대상에서 수상-강화군, 한눈에 보는 2023년 살림살이

지난 6월 2023회계연도 강화군 의회 결산(안)이 승인되며,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했다.

강화군의 지난해 세입과 세출, 자산과 부채 등 재정운용 상황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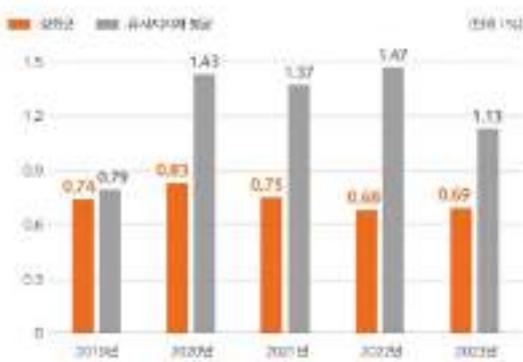
강화군 재정건전성 매우 좋아!

우선, 강화군 재정상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자체 인천 계양구, 경기 연천군, 경남 함안군 3개 지자체의 5년간 재정운용 상황 비교 분석 결과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부채 비율 항목에 있어 강화군은 0.69%, 유사 지자체 평균은 1.13%로, 이는 유사 지자체 대비 61%로 재무건전성의 대표 지표인 부채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 또한 없다.

1.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0.69% (총부채 / 총자산 x 100)

총자산 중 총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총수입 8,085억 원, 총지출 6,679억 원

강화군의 지난 한 해 총수입은 8,085억 원으로 전년대비 312억 원이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6,679억 원으로 전년대비 433억이 감소했다.

수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이 925억 원으로 총세입의 1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의 기초 지표가 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이 5,663억 원으로 총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인 70.0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 수입이 1,497억 원으로 총세입의 나머지 18.52%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 내역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651억 원이 지출되어 일반회계 총 지출액의 1/4 정도인 24.84%를 차지한다, 이는 점차 고령화 되어 가는 우리군의 복지예산 수요를 반영한 군민 맞춤형 세출 정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강화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세입이 2019년 7,409억 원에서 2023년 8,085억 원으로 676억 원(9.12%) 증가했으며, 세출은 2019년 5,589억 원에서 2023년 6,679억 원으로 1,090억 원(19.50%)으로 각각 확대되어 살림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거두었다.



자산과 부채...총자산 2조 8,247억 원, 총부채 194억 원

강화군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자산은 2조 8,247억 원으로 전년대비 9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194억 원으로 전년대비 9억 원이 증가했다.

강화군의 자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금처럼 즉시 집행 가능한 유동자산이 2,125억 원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이 45억 원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2,513억 원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인 각종 편의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6,329억 원,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 7,215억 원 ▲소프트웨어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 원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산은 사회기반 시설로 총자산의 60.94%를 차지했다.

주차장, 공원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취득 증가액이 425억 원으로, 이는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화 만들기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를 살펴보면, 총부채는 194억 원으로 3년간 부채 비율 1%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 유동부채가 109억 원이고, 그 구성은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사용 잔액 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 중인 각종 급여 공제액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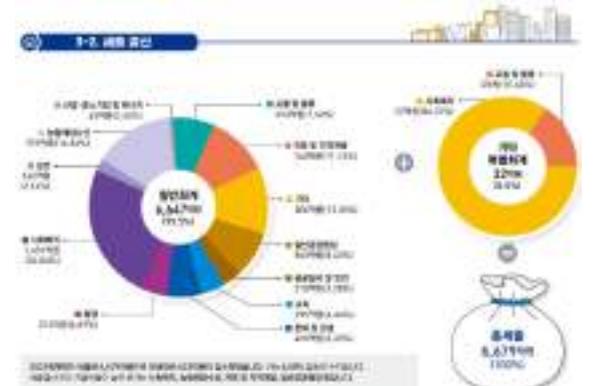
또한,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되는 미확정 추산 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는 강화군 공무원 근로자 일시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 금액 등 85억 원이 있으며, 은행 차입금인 채무는 없다.

부채와 채무의 이해

부채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에 의하면 '강화군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적 의무(Duty)'를 의미한다.

미래의 의무(Duty)로 규정한 것은 부채와 채무가 같으나 각각의 관리범위에서 부채는 미래의 예상되는 모든 의무(Duty)를 그대로 관리범위로 인식하는 반면, 채무는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돈인 빚(Debt)만을 그 관리범위로 하고 있어 관리범위에서 부채와 채무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보다는 부채가 큰 것이 일반적이고, 현시점에서 부채가 없는 중앙 및 지자체는 없으며 부채의 건전한 관리가 재정 운용의 관건이다.



재정의 운용 방향

강화군의 한 해 살림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한 해 살림살이를 마감하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재정운용을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다시 다음연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수상 2회, 장려상 2회 4년 연속 수상하며, 재정운영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군민을 위한 수요 맞춤형 재정 정책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집행된 예산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4. 군민 1인당 총부채 281,011원 (총부채 / 인구수)

군민 1인당 총부채가 감소수록 군민의 부담은 줄어들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높습니다.



+ 2 0 2 4 농 촌 왕 진 버 스

도서 주민 450여 명 검진...생활 맞춤형 진료로 호응도 높아 강화군, '2024년 농촌왕진버스 사업' 호응 속 마무리



농촌왕진버스 사업



농촌왕진버스 사업

강화군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한 '2024년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서도면 주문도와 불음도를 찾아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서도면 주민자치센터와 불음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한 이번 검진에는 주민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방의료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햇살마루의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검진을 도왔다.

주요 진료내용으로는 침, 부항, 온열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특성에 맞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 의료인의 1:1상담을 통해 진료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검안(시력) 검사를 통한 돋보기도 맞춤 제공하며 세심하게 검진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9월 10일 삼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주민 150여 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번 서도면까지 총 450여 명의 주민들이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강화군은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의 예산 지원과 농협중앙회, 서강화농협의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처음 진행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14개 분임조, 41개 정책사업 제안 MZ공무원 브레인스토밍 정책아이디어 역량강화 결실



브레인스토밍 토론모습

강화군 MZ공무원들이 참여한 브레인스토밍에서 41개 정책사업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강화군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도입했다. 브레인스토밍은 부서와 직렬이 다른 저연차 공무원들이 분임조를 꾸려 지난 4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1기와 2기에 걸쳐 6회 진행됐다.

MZ공무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직무연찬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론으로 현안 과제를 인식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제시된 아이디어는 전문 강사와 선배

공무원의 도움을 통해 시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주요 제안 아이디어로는 ▲강화남단 부잔교 갯벌 탐방로 조성 ▲농어촌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 ▲영유아 발달 정서검사 지원 ▲어린이 문화센터 조성 ▲힐링과 치유의 시간, 강화 휴양지 조성 사업 ▲강화섬쌀 전통주 양조 벤처센터 ▲주민 대피시설 활용 마을 수익사업 ▲한해살기! 만원 임대주택 사업 ▲해변의 즐거움을 두배로 해수풀 조성 ▲북(BOOK) 새통 빌리지 ▲북 스테이 in 강화 ▲예술을 꺼내 먹어요! 화문석 체험 키트 자판기 설치 등 41개 사업으로 군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책들이 발굴됐다.

군은 제시된 정책사업들을 평가하고 선발해 최우수 14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60만 원을 분임조에 지급할 계획이다.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한 MZ공무원은 "자율적인 분임조 토론으로 협력과 소통이 잘 이뤄졌다"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군정의 주요한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변화에 민감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중시하는 MZ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강화군의 자산"이라며, "저연차 공무원의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수평적인 의견이 조직과 군정에 반영되는 공직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강화군은 24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절차로, 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 산업안전보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4분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점검과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논의하고, 현업근로자 건강상담 실시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현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항상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작업 수칙을 준수해 작업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도 청렴한 하루 되세요!

강화군,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캠페인’ 실시



청렴캠페인

강화군이 지난 25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감사담당관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출근길에 하루를 시작하며 청렴의식을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내 복도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청렴실천을 홍보하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제에 대해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청렴캠페인과 같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화군이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화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신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293호이며, 26일부터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10월 25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원의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열람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군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문의 ▶ 군청 재무과 ☎ 032) 930-3284

강화군, 강화섬 딸기 전문 재배기술 컨설팅 방식 교육 실시



딸기 재배기술교육

강화군은 지난 23일 '강화섬 딸기 전문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관내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적기 영농기술 지원

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했으며, 올해 연동하우스를 신축한 청년농업인 딸기농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와 딸기농장을 운영하면서 충남 WPL 현장실습교육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강영식 강사를 초청해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해 추진했다.

딸기 시설재배는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높은 편으로 강화군도 아직은 시설딸기 재배면적 및 농가수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수도권 근교 농촌체험 여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딸기 재배 희망 청년농 유입과 강화군의 지속적인 시설원예분야 지원 사업 등으로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설딸기는 육묘기 화아분화, 정식 후 관리기술, 시들음병 등 병해충 예방과 같은 정식 후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중심 기술 지도로 강화섬 딸기가 강화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건전 재정운용 확립 강화군,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 효율화 강화 점검



간부회의

강화군이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예산 효율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 실무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무 심사에서는 관련 사업별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가 자체 평가한

전년도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예산 집행 현황, 성과 달성도 등을 확인 및 점검했다.

이에 대한 최종 평가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자체 노력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으며,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 노력도 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행사·축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일회성·유사 중복 행사는 과감히 폐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하반기 개발행위허가 업무 연찬회 개최

강화군은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발 행위허가 담당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개발행위허가 업무 연찬회

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 관리, 인구증가를 위한 여건 조성 등 강화군의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 모색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심의 서류 작성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업무 처리 사례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공유하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전반

적인 허가기준과,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업무처리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및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추진하겠다"며, "인·허가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민원 중심 행정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대한노인회 선원면분회, 노인의 날 행사 관련 회의 개최



대한노인회 선원면 분회 노인의날 행사 회의 개최

강화군 선원면 대한노인회 선원면분회(회장 김선하)는 지난 27일 선원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노인의 날 행사'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각 리 경로당 노인회장,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체육진흥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단체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음 달 23일에 있을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정수 부회장은 "노인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협조해 주시는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광석 선원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노인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 모여 주신 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노인의 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재밌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 봉사 활동 실시



양도면 협의체, 저소득 취약가구 청소봉사

강화군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춘흠)는 지난 20일 주거환경 정돈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 가구를 방문해 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 10여 명은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68세)택을 방문해 주택 외부에 오랫동안 쌓아놓은 각종 폐기물과 고장 난 가전제품들을 정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전춘흠 위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순규 양도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힘써주신 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꾸준한 돌봄과 봉사로 모두가 행복한 양도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합심

양사면 주민자치위원회, 가을맞이 제초 작업 실시



양사면 주민자치위원회 가을맞이 제초작업 실시

강화군 양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지난 13일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제초 작업을 실시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회원 24명은 교산리부터 인화리까지 인도 위에 난 잡초를 집중적으로 제거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김성기 위원장은 "가을을 맞아 회원들이 합심하여 제초 작업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양사면을 위해 앞장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양사면장은 "긁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서 주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방문객 편의 제공 교동면 유관 단체, 추석 명절 교통 정리 봉사활동



교동면 유관단체 추석연휴 교통정리 봉사활동 실시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 유관 단체는 추석 연휴 기간 방문객들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교통 정리 자원봉사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이장단(단장 김형태)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명철), 자율방범대(대장 김형철),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황순화), 새마을지도자회(협회장 임달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손명섭) 총 6개 단체가 참여해 통행량이 많은 대룡리

공영주차장 및 대룡시장 주변의 교통 정리를 실시했으며 교동대교의 군부대 검문에도 참여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힘썼다.

한 귀성객은 “주말이나 명절이면 대룡시장 주변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정리를 해주시니 편안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연휴 기간 가족과의 시간도 반납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선원면 주민자치위원회, 호우피해 수해복구 봉사활동



선원면 주민자치위원회 호우피해 수해복구 봉사활동

강화군 선원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태석)는 지난 14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를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회원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해 침수된 가재도구를 꺼내고 청소 후 도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태석 위원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 수재민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되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를 기원한다”며, “선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광석 선원면장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가 생겨 마음이 참담하지만,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가 끊이지 않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폭염 속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솔선수범해 준 선원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화답했다.

불은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의무교육’ 실시



불은면 기본형 직불금 대면교육 사진

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전달 및 공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익직불제 정보와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불은면 기본형 직불금 신청자의 52%가 70세 이상이므로 휴대전화

와 인터넷 사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의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불은면사무소에서 현장 대면 교육을 19일까지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염명희 불은면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이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의무교육을 못 받아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불은면(면장 염명희)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 1,051명 중 직불금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불은면사무소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강화군, 가을의 낭만이 솔솔...가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을빛으로 물든 화개정원으로 놀러 오세요!



강화군, 가을의 낭만이 솔솔



강화군, 가을의 낭만이 솔솔

강화군의 관광 랜드마크인 화개정원에서 오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가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가을철 화개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을의 낭만을 느끼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컵 가든 나팔꽃 키우기 ▲다육 식물 화분 만들기 ▲한지공예 꽃 만들기 ▲화개 정원 타투체험 등이 준비된다.

또한, 국화, 구절초 등 가을꽃과 국화조형물 등을 정원 곳곳에 설치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전망대에서는 스카이워크를 걸으며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녘도 감상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직접 화분에 그림을 그리거나 식물을 키우고, 채취한 나뭇잎으로 나만의 손수건

을 만드는 등 정원의 가을을 체험하며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화개정원을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길과 야외 방 탈출 게임 등 모바일 프로그램도 항상 운영한다. 미션 성공 시에는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개정원에서 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가을꽃을 식재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분이 화개정원에서 가을날 멋진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26~27일,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참가해 귀어귀촌 상담 및 정보제공 인천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인천 어촌 매력 알린다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도시민의 어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야외광장 서울마당에서 열리는 ‘2024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도심지의 야외공간에서 어촌관광을 홍보하고 귀어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에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등 인천의 어촌 지역을 알리고 인천 귀어학교 교육과정, 귀어 창업 및 정착지원을 위한 활성화 사업 등 귀어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 운영되는 상품 홍보존에서는 경인 북부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새우젓과 2023년 귀어귀촌박람회 우수귀어인으로 선정된 김원중 씨가 직접 어획한 꽃게로 만든 ㈜씨포레스타의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전시해 지

역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룰렛 돌리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친구 맺기 행사 등을 통해 강화 새우젓, 옹진 까나리액젓 등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고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인천 어촌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도시민들이 인천에 귀어귀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인천에서 꼭 해야 할 9가지 경험 '인천9경' 최종 선정!

대국민 투표, 전문가 심사 등 거쳐 '1883 개항장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기' 등 9경 확정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에서 꼭 경험해야 할 9가지 특별한 관광 체험, '인천9경'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9경'은 '경치(景)'의 의미를 넘어 '경험(經)'의 의미로 확장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관광지가 아닌 관광객들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어 공유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관광지로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인천9경'은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기 ▲월미바다열차 타고 낭만 가득 월미도 즐기기 ▲도심 속 포구 소래포구에서 생태 자연 체험하기 ▲야경 명소 계양 아라온에서 빛의 거리 구경하기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미래도시 산책하기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바닷길 따라 레일바이크 타기 ▲강화읍 원도심에서 도보 탐방하기 ▲신·시·모도 삼형제 섬 일주하기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물범 만나기 등이다.

제1경은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기'이다.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로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과거가 재현된 거리에서 오래된 건축물과 상점들을 구경하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제2경은 '월미바다열차 타고 낭만 가득 월미도 즐기기'이다. 월미도는 자연과 문화, 바다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월미테마파크의 디스코광광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으며,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월미바다열차를 타고 낭만 가득한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제3경은 '도심 속 포구, 소래포구에서 생태자연 즐기기'이다. 소래포구는 인천의 대표 해양생태

관광지로 소래역사관을 비롯해 습지 내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역사, 소래포구 어시장 등이 있다. 소래포구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즐길 수 있다.

제4경은 '야경명소 계양 아라온에서 빛의 거리 구경하기'이다. 계양대교 밑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펼쳐지는 계양 아라온에서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낮에는 꽃의 정원을 거닐며 산책하고 해질 무렵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한 후 저녁에는 계양 아라온에서 화려한 빛의 거리 야경을 보며 힐링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제5경은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미래도시 산책하기'이다. 송도센트럴파크는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공원이자 송도의 랜드마크로, 수상택시·카누·문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체험 뿐 아니라 도심 속 다양한 조형물과 그림같은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제6경은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바닷길 따라 레일바이크 타기'이다. 인천 영종에 위치한 해변공원 씨사이드파크에서는 레일바이크를 타고 인천의 해안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특색있는 캠핑장과 염전산책 등 다양한 자연 속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제7경은 '강화읍 원도심에서 도보 탐방하기'이다. 강화읍에서는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직접 걸으며 강화의 역사·산업·종교를 한눈에 만날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도보해설을 들으며 각 장소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원도심 관광지에서 다양한 체험과 원데이 클래스를 즐길 수 있다.

제8경은 '인천 삼형제 섬, 신·시·모도 일주하기'

이다. 연도교로 이어진 신·시·모도 삼형제 섬을 일주하며 세 개의 섬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 섬과 섬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여행, 스쿠터 라이딩을 하며 탁 트인 해안가의 바다뷰와 각 섬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다.

제9경은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물범 만나기'이다.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으로 웅진군의 천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특별한 섬이다.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백령도를 탐방하며 천혜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학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인천9경'은 인천의 군·구 추천과 선정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상위 18곳의 후보지를 선정 후, 온라인 투표(60%)와 외부 전문가 심사(40%)를 합산해 최종 선정됐다. 온라인 투표에는 총 18,650명이 참여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인천9경' 선정에 맞춰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 안내소에 배포할 예정이며, 9월 30일부터는 '인천 단독 온라인 숙박 기획전'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10월에는 다양한 '인천9경' 챌린지 이벤트도 개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9경'이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험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인천9경'이 인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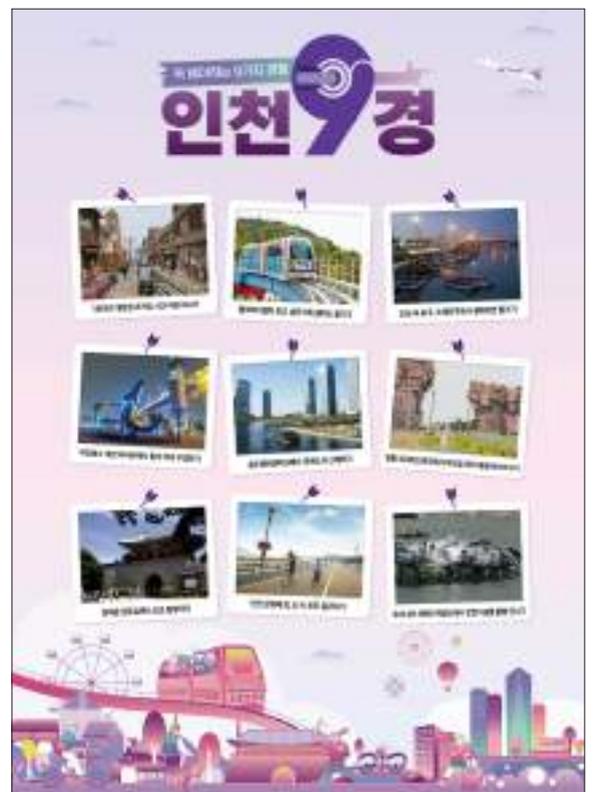
도심 속 포구, 소래포구에서 생태자연 즐기기



야간명소 계양 아라온에서 빛의 거리 구경하기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바닷길 따라 레일바이크 타기



역사
기교

사도세자의 아들, 은언군

이경수



장조(사도세자) 용릉[경기 화성]

사도세자의 죽음

쌀도 아닌데, 사람인데, 그것도 무려 세자였는데, 뒤주에 갇혔습니다. 때는 1762년(영조 38) 윤달 5월 13일. 양력으로는 7월 4일, 꽤 더울 때였습니다. 뒤주 속 세자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견디다 9일 만인 윤달 5월 21일에 죽고 맙니다. 향년 28세!

그를 죽인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思悼世子)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죽일 거라면, 사약 정도로 하지, 굳이 뒤주에... 쓰는 생각할 사,悼는 슬퍼할 도 자(字)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1735~1762)가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글썬요, 모르겠습니니다. 사도세자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말도 있고, 반역을 꾀했다고도 전합니다. 소론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도세자를 노론 세력이 죽게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충돌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진실은 안갯속에 숨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정말 정신 질환을 앓았다면, 아버지 영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세자가 어릴 때는 영조도 자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치게 엄해졌습니다. 자식이 훌륭한 임금이 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만, 자식은 외려 벗어나갔습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에는 소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기생은 물론이고 여승까지 궁으로 불러들여 품었다고 하는데, 여자를 밝혀서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려는 일종의 반항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위 파동

특히 사도세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 건 영조의 선위(禪位, 임금 자리를 물려 줌) 파동이었습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에 몇 번이나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위하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태종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세자에게 선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세자의 외삼촌 얼굴에 미소가 살짝 비쳤습니다. 기뻐하는 기색이 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죄가 되어 귀양 갔습니다. 사형당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임금이 선위하겠노라, 그랬을 때, 어느 신하가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다간 경을 칩니다. 조선시대에 여러 임금이 선위를 말하곤 했는데 진심으로 말한 임금은 아주 드뭅니다.

대개 선위라는 이슈를 조정에 던져 놓고 신하들과 세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는 겁니다. 충성심을 확인하려는 정치 행위인 셈이지요. 이 과정에서 세자 편을 드는 것 같은 언행을 보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하와 세자는 정답을 압니다. “아니 되웁니다.” 더해서 표정 관

리도 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웃음기를 띠면 큰일납니다.

선조도 몇 번이나 광해군에게 선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은 온통 아니 되웁니다, 당신만이 최고이십니다, 했습니다. 광해군은 더 간절하게 아니 되웁니다, 해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리도 절절하게 원하니, 내 선위 명을 거두노라!” 이렇게 선조는 ‘재신임’을 받곤 했어요. 참 피차 피곤한 일입니다.

이런 정치 행위를 영조도 한 것입니다.

영조는 불과 두 살 먹은 아들을 세자(사도세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 나이 5살 때 선위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겨우 5살 먹은 아가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선위의 명을 거두시라는 조정의 절규 속에서, ‘죄인’ 된 사도세자는 석고대죄해야 했습니다. 선위 선언이 나오는 순간, 왕위 계승권자인 세자는 일단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 6살 때, 15살 때, 18살 때, 23살 때, 거듭 선위를 명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사도세자는 꿇 마당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신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선위의 명을 거두어 주소서.”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언제 왕위를 물려달라고 했습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1757년(영조 33) 11월 어느 날 밤, 대신들이 모인 자리. 영조가 사도세자를 마구 질책합니다. 23살 사도세자는 그저 엎드려 슬피 읍니다. 뭐라고 변명의 말도 못 하고, 머뭇거립니다. 영조는 그게 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왕이 될 놈이 말 한마디 못하는가?

말 잘하는 사도세자가 아버지 앞에만 가면 몸이 굳고 혀가 굳습니다. 겨우 튀어나온 몇 마디



은언군 신도비[서울 흥창사]



장조(사도세자) 율릉[경기 화성]



철종외가

말도 그냥 더듬습니다. 그만큼 영조가 무서운 겁니다. 보다 못한 신하가 영조에게 아뢰입니다.

“전하께서 너무 지나치게 엄해서 세자가 늘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세자를 따듯하게 대해주시고, 잘못된 조종은 훈계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입니다.”

그날 밤, 영조가 생급스럽게 선위를 또 선언합니다. 신하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을 실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궁이 물러나와 뜰에 내려가다가 까무러쳐서 일어나지 못하니, 유척기가 급히 의관을 불러 진맥하도록 청하였다.”

졸도했던 사도세자는 청심환을 먹고서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은언군의 눈물

사도세자와 세자빈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정조가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는 궁녀와도 관계하여 은언군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언군(1754~1801)은 정조 임금의 이복동생입니다. 이름은 이인(李裨)이고요.

왕은 궁녀를 품을 수 있으나, 세자는 자중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러니 은언군 출생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혼날 게 두려워서 뱃속 아가를 지우게 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은언군이 세상에 나오고 말았지요. 영조는 여러 날에 걸쳐 사도세자를 꾸짖고 혼냈습니다.

은언군 모자는 박대의 대상이었습니다. 눈치박 먹으며 외롭게 큰 은언군,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아버지가 야속했겠지요. 그래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든든함 그 자체였는데, 그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숨졌습니다. 이후 은언군은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1767년(영조 43), 13살 때, 은언군이 장가들게 됩니다. 송낙휴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은언군의 혼례 택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사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승정원일기》에 실린 사실입니다.

그해 7월에 담당 신하가 영조에게 보고합니다. “다음 달 윤7월 초가 길일(吉日)입니다. 윤7월 보름부터 11월까지는 흉일(凶日)입니다. 그리고 12

월도 길한 달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로 택일할지 물었습니다. 영조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11월에 은언군의 혼례를 거행하라.”

무심히 읽으셨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조는 굳이 좋은 날을 피하고, 흉하다고 하는 나쁜 달 11월에 혼례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심술입니다. 그렇게도 은언군이 싫었나 봅니다. 그래도 왕손인데, 당신 손자인데….

궁 밖에서 사는 은언군, 행실이 반듯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소한 사고를 쳐서 물의를 일으키고 급기야 제주도까지 귀양 갔다가 풀려납니다. 꽤나 할아버지 영조의 속을 썩였습니다.

세월이 갔고 영조의 세월도 갔습니다. 1776년에 정조가 즉위합니다. 이때 정조 나이 25세, 은언군은 22세였습니다. 정조가 아우 은언군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은언군, 이제 꽃길만 걷나 싶었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마친 삶

즉위 초, 정조가 믿고 의지했던 이가 홍국영입니다. 홍국영은 정조를 지키려고 무진장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육이 커진 것 같습니다. 1778년(정조 2)에 자기 누이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입니다. 원빈홍씨입니다.

홍국영은 원빈홍씨가 아들 낳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아들이 세자가 되기를 욕망했습니다. 하지만, 후궁 된 지 1년여 만에 원빈홍씨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딱 멈추었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을, 홍국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은언군의 아들 이담을 죽은 누이 원빈홍씨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홍국영은 조카가 된, 은언군 아들 이담을 ‘가동궁(假東宮)’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자로 세우려는 흑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조 때는 물론이고 다음 임금 때에도 권력을 누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정조는 홍국영을 축출합니다. 1781년(정조 5), 34세 홍국영이 강릉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홍국영은 이렇게 끝났으나 은언군의, 은언군 집안의 고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국영이 이담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소리가 조정에 돌면서 역모사건으로 규정되고 말았

습니다. 그래서 은언군 이인과 이담 부자도 역적으로 몰려 공격받게 됩니다. 1786년(정조 10)에 이담이 의문의 죽음을 맞고, 이후 사건이 커지면서 이인이 귀양 가게 됩니다. 정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인과 가족이 강화로 귀양 오게 됩니다. 신하들이 은언군 이인을 죽여야 한다고 외쳤지만, 정조는 끝끝내 이인을 지켜주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겉모습은 귀양인데, 실상은 한양에서 강화로 이주한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또 갔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11살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합니다. 1801년(순조 1), 정순왕후가 은언군의 부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이담의 부인)에게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은언군과 자식들을 천국 안치하라고 명합니다.

지금까지 넓은 집에서 그런대로 편히 지내던 은언군인데 이제 꼼짝없이 가시울타리로 꽁 막힌 방안에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얼마 뒤 은언군이 울타리를 뚫고 밖으로 나왔다가 붙잡힙니다.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강화도 유배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48년 파란만장했던 은언군 이인의 삶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은언군은 갔으나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강화에서 귀양 살고 있습니다. 1822년(순조 22), 즉위할 때 11살 꼬마였던 순조가 33세가 됐습니다. 이때 순조가 은언군의 자식들을 풀어주고, 한양으로 불러올려 결혼하게 해줍니다. 풀려난 자식 중에 이광(1785~1841)이 있습니다. 2살에 부모 따라 강화에 유배되어 38세 때 비로소 풀려난 것입니다.

이광은 뒤늦게 결혼하고 자식을 봅니다. 부인 최씨에게서 이원경, 측실 이씨에게서 이경응, 측실 염씨에게서 이원범을 얻었습니다. 막내아들 원범이 철종으로 즉위하면서 전계대원군으로 추존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범만 강화에서 유배 산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인, 아버지 이광, 그리고 이원범! 삼대의 유배지가 모두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강화종실(江華宗室)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기고

강화군민이여, 군정(郡政)에 새 바람 몰고올 후보를 선택하라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수를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출마자는 국민의힘 박용철(59),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 무소속 김병연(52) 네 사람이다. 모두가 인천과 강화도에 연고가 있다. 출마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차리는 등 지지세를 결집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선거 운동이 곧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10월 3일 출마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선거 벽보가 거리에 붙여지며, 후보자들은 3일부터 투표 전날인 15일 밤까지 선거 운동을 펼친다. 사전 투표는 10월 11~12일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일인 16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과연 강화군민이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하고 어느 후보를 당선시킬 지 전국적인 관심거리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 또는 심판으로 여길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여 선거 열기가 뜨겁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강화에서 이번 선거는 예전과 달리 보수 후보가 당선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보수 성향의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는 이번 강화군수 선거를 위해 인천시의원을 사퇴했다. 강화초등학교와 인천 대건중, 송도고를 졸업했으며 강화군의회 3선 의원을 지냈다. 박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는 강화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라며 "편가르는 정치를 하지 않고 누구보다 빠르게

강화를 안정시키고 규제개혁 등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평택부시장·부천부시장을 지낸 행정가 출신으로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다. 2018년과 2022년 지방 선거에 출마했으나 유천호 전 강화군수에 밀려 낙선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 한후보는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고 부시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민의 삶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나이들어 노욕이라는 일부의 비난을 뒤로 하고 안 후보는 "30년간 몸담은 우리 당(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잠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강화군수에 당선되면 즉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강화군에서 15대(계양구강화군갑)·19대(서구강화군을)·20대(중구동구강화군을) 국회의원을 지냈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인천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의 이력을 갖고 있다.

강화군은 전국에서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터 최근까지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 계열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보수표를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돼 어느 누구도 손쉽게 당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안상수 후보의 득표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장을 2번,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알

려졌기에 그를 아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화에서 몰표를 받아 당선됐다. 예상대로 보수표가 갈라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두 차례 낙선했지만 득표율은 만만치 않았다.

출마 후보들을 개인적인 면면으로 보면 나름대로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면 강화군민들은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 것인가. 알려진 대로 강화군의 대표적인 특성은 배타성과 폐쇄성이다. 이는 오랫동안 강화군민을 하나로 묶는 데 큰 역할을 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강화군의 발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보다 넓게하고 강화군정에 강력하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군정을 펼쳐 나갈 자세가 되어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강화군이 발전하고 강화군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군수를 비롯한 어느 한두사람이 일방독주식으로 군정을 펼치는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다. 그런데 강화군정은 아직도 구시대적 냄새가 강하다. 이제는 폐쇄적인 군정이나 밀실 행정, 시장의 독단적인 일처리로 현장의 공무원과 민원인을 옥죄어선 안된다. 강화군에 구시대의 잔재와 폐단을 걷어내는 새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는 새로 선출되는 강화군수의 사명이기도 하다. 강화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기다려진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공자 및 옛 성현들 학덕 추모 강화군, 강화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강화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강화군이 28일 강화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향교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향교가 주관한 석전대제는 매년 공부자 기신일인 5월과 탄강일인 9월에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을 추모하는 제사이다.

강화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던 교육 기관으로 1985년 인천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석전대제뿐만 아니라 기로연, 전통문화학교, 명륜학당 등을 통해 소중한 옛 전통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석전대제와 같은 전통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이 잊히지 않고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지역주민을 위한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초청강연 개최



북부문화센터 인천형시민교수 초청 강연회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인천시가 '시민교수'로 선정·인증해 교육활동을 통해 재능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일환이다.

개최 장소인 북부문화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린이뮤지컬, 미술교육 등 교육청 연계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세시풍속 동지행사', '경성유행가-판을 나온 소리', '한반도 아리랑 축제' 등의 특색있는 전통문화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민교수 강연을 시작으로 인문학(문해력), 다문화, 직업능력 등 분야별 강의 개최를 추진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12월(강화한반도아리랑축제, 경성유행가, 인화축제-내가최고)까지 북부문화센터 연말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KEYWORD NOW

토픽경제(Topping Economy)

토픽경제(Topping Economy)는 소비의 주체가 자신의 취향을 반영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경제 모델을 뜻합니다.

'토픽'이라는 용어는 주로 음식에서 토픽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인화 과정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기본 상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신만의 '토픽'을 더해 제품을 맞춤화하고,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 상품을 구매하고, 필요나 취향에 맞게 선택적으로 더 많은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스타벅스는 커피, 우유, 시럽, 토픽 등을 고객이 선택해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토픽경제 모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Nike By You'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만의 신발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 소재, 문구 등을 선택하게 해 맞춤형 제품을 제공합니다. 도미노 피자도 기본 피자 외에도 토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취향에 맞춘 피자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들은 기본 차량 외에도 다양한 옵션(내부 소재, 기술 패키징, 색상 등)을 제공해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맞춤 제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토픽 경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토픽 경제는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다양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킵니다.

강화군의 특산물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구매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자세로 소비층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생산과 제작, 판매마케팅에 있어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오늘을 알려주는 키워드였습니다.

- 강화투데이 편집부

2024 하반기 강화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방안 안내 「강화교육지원청, 2024 하반기 학교지원설명회 실시」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교육설명회

인천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강화 관내 유·초·중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4 하반기 학교지원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출범과 함께 이 사업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하반기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사업들을 안내하며 학교 관리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강화가 그 역사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해내고 지속가능한 교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강화의 교육이 특색있게 변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참석한 학교 관리자들은 “인천교육 정책과 방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특구와 함께 강화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며 의미를 두어 말했다.

한기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강화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며 학교 지원을 다짐했고 강화의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강화교육발전특구라는 새로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화군노인복지관, 시민재난안전 강사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진행



강화군노인복지관, 시민재난안전 강사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진행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이 지난 25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교육 공모에 선정돼 교육용 CPR 더미 AED 제세동기 등 어르신들이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안전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시청각 교육보다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 훨씬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윤심 관장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를 맞아 화재나 재난에 어르신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복지관 어르신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화군 행복센터, 추석 마카롱 선물 세트 만들기 뜨거워 인기



강화군 행복센터, 추석 마카롱 선물 세트 만들기



강화군 행복센터, 추석 마카롱 선물 세트 만들기

강화군 행복센터(센터장 강종욱)가 지난 13일, 행복센터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추석 마카롱 선물 세트 만들기'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달콤한 간식거리 마카롱에 한국의 멋을 입힌 'K-마카롱'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돼 개강 전부터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수강생들은 송편, 보름달 등 추석을 대표하는 모양으로 마카롱 꼬끄를 직접 반죽해 구워낸 후 달콤한 크림으로 필링을 채워 각자의 개성이 담

긴 마카롱을 만들었다.

정성스레 마카롱을 만든 한 수강생은 “부모님께서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시는데 선물로 드리면 기뻐하실 모습에 벌써 마음이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종욱 센터장은 “참여하신 분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마카롱을 만들며 추석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강을 준비해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함께 친환경 생활 습관 체험 강화군, 특별한 강의 진행, 친환경 재료로 삼푸바 만들어요!



유유기지 강화 친환경 삼푸바 만들기 특강

강화군이 지난 24일,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강화에서 ‘친환경 삼푸바 만들기’ 유유자적 9월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수리상점 곶손’의 강사를 초청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을 알리고 친환경 실천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발생과 관련한 내용을 시작으로,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처리 과정 및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어,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를 사용해 자신만의 삼푸바를 만들며 친환경 생활 습관을 체험했고, 친환경 재료를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유기지 강화에서 친환경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강화군, 전 군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강화군이 내달 2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별 접종 일정은 ▲10월 2일부터 생후 6개월 ~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10월 1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14세 ~64세 군민들의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단, 주민등록상 관외자로 되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 ~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으나, 강화군은 자체 예산을 마련해 14세 ~ 64세 이하의 군민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보건(지)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어디서나 접종이 가능하며, 강화군 자체 사업 대상은 12월 22일까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후 강화군보건(지)소 또는 관내 지정 의료기관 20개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시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예방접종 수첩, 임산부는 신분증과 산모수첩,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와 기저질환자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강화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32-930-4076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으로 강화군, 해산물 내장 제거, 패류 익혀 먹을 것 당부

강화군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해산물을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다.

강화군은 해안지역에서 서식하는 해산물(소라 외 6종)에 대해 비브리오균 검사 결과 생선류는 전어, 패류는 상합과 소라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의 온도가 18~20℃ 이상으로 상승할 때 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8~9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다. 감염되었을 경우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수칙으로는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 85℃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금지 ▲바닷물 접촉 후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에서 저온 저장 ▲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 착용, 요리한 도마·칼 등은 소독 후 사용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산물은 반드시 내장을 제거하고 상합과 소라 등 패류는 날것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며,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4 강화군수 보궐선거

더 나은 강화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약속합니다!



사전투표 10월 11일(금) ~ 12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본 투표 10월 16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10. 14.(월)까지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 이 광고는 공익과 행복한 강화를 위해 <강화투데이>에서 무료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투데이 5천부 제작비 중 원고료(2인), DM제작 우편발송료(1천부), 일반배송비(1천부)만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인쇄비를 포함한 모든 부가비용은 자체제작입니다.